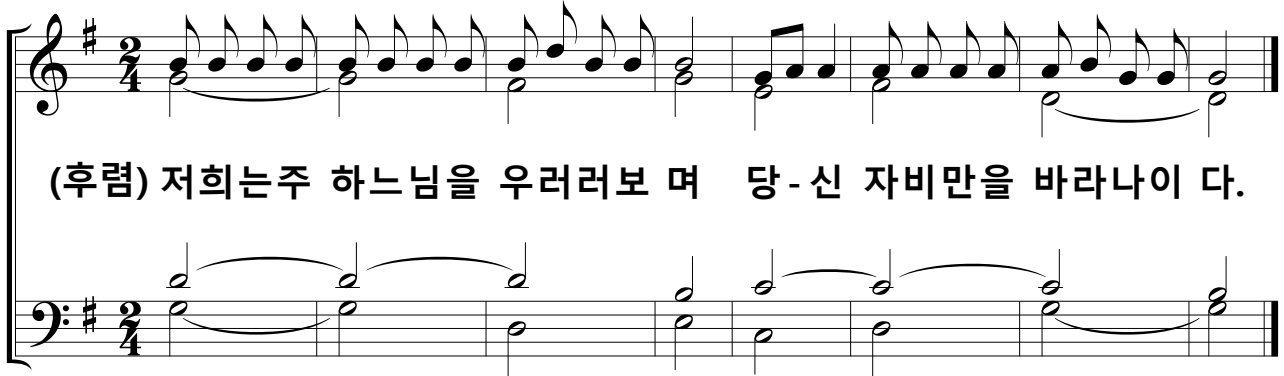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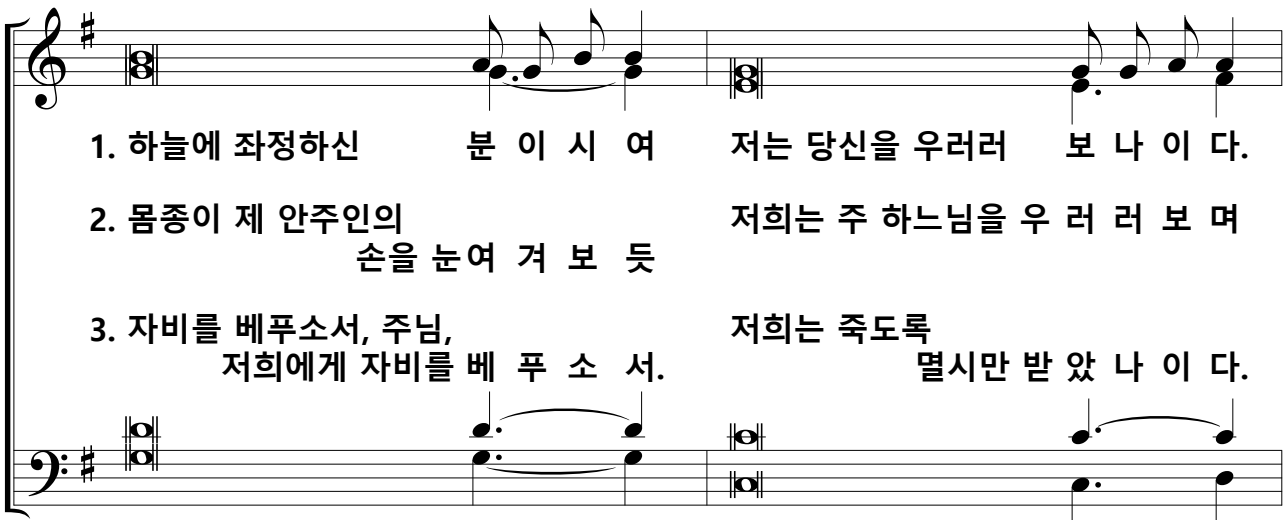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14 주일 화답송 [나해]

시편123(122), 1-2ㄱ. 2ㄴㄷㄹ. 3-4



(후렴)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 며 당 - 신 자비만을 바라나 이 다.



1. 하늘에 좌정하신 분 이 시 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 나 이 다.
2.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 겨 보 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 러 러 보 며
3. 자비를 베푸소서, 주님, 저희는 죽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 소 서. 멸시만 받 았 나 이 다.



보소서, 종들이 제 당신을 우러러 보 나 이 다.
주인의 손을 눈여 겨 보 듯
당신 자 비 만 을 바라 나 - 이 다.
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저희 영혼이
교만한 자들의 멸 - 시 를 죽도록 받았나 - 이 다.